

제9강 여호수아서 개관

■ 서론

여호수아서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도, 헬라어 70인역도, 라틴어 Vulgate역도 모두 “여호수아”(JOSUA, יהושע)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 구조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8:35 가나안 입성,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승리
- 9:1-12:24 가나안 남부와 북방 전투에서의 승리 묘사
- 13:1-21:45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 분배
- 22:1-24:33 결론
 - 22장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
 -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 24장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이 구조를 보면 크게 정복 전쟁과 땅 분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론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와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상실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동쪽을 위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6장에서 8장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중앙부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6-8장)은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은 남부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11장에서 북부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23장까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내용 정리

1:1-8:35 가나안 입성; 서전(緒戰)에서의 승리

여호수아의 첫 부분은 신명기 마지막 장의 주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의 성패도 율법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연결되는 이유도 율법의 수호에 있었습니다.

[사명] 1: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율법준수]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장-8장 : 여호와와 전쟁을 준비하다

2장에서 8장은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나안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聖戰)이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의 도움과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줍니다.

2: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3장은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때도 마치 홍해 사건처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내 댓자 요단강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먼 곳에 가서 멈춰서 물 벽이 되어서 대기했습니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 안에 있던 돌 열둘을 가져다 길가에 세운 사건입니다. 갈갈에 세워진 돌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4: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것처럼 보이지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이 때부터 만나가 그쳤고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와의 전쟁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6장의 여리고 점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전쟁은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도 실제로 성이 안쪽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복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잘 가르쳐 준 예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7장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हे렘)을 여호와께 바치지 않고 자신의 장막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그와 그의 물건을 돌로 쳐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곳이 찬송가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8장 마지막에서(8:30-35) 다시 언약 갱신 의식을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절반은 그리스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역시 이 전쟁의 승패도 율법의 준수 여부였고, 이 전쟁 이후에 그 땅에서의 삶도 율법의 준수라는 신명기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9:1-12:24 가나안 남부와 북방 전투에서의 승리 묘사

이스라엘의 남방 전투는 일반적인 전투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 어디를 먼저 가야 하겠다는 결정에 의한 전투이기 보다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남쪽을 먼저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핑을 내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이 발각되지만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들은 남방 지방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의미였죠. 여호수아가 이 일을 듣고 화친 관계에 있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밤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섯 왕을 막게다라는 굴에서 잡아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다섯 왕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목을 내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북부 지방 하솔 왕(야빈)이 주변 여섯 족속(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산지 여부스, 히위족속)과 함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이 때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11: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습격하여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모두 몰살합니다. 북부 지방도 이렇게 쉽게 정복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기를 정리하는 11장 21절에서 23절에는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1: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족의 후예입니다. 40년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고 했는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몇 남지 않은 가드의 아낙 자손이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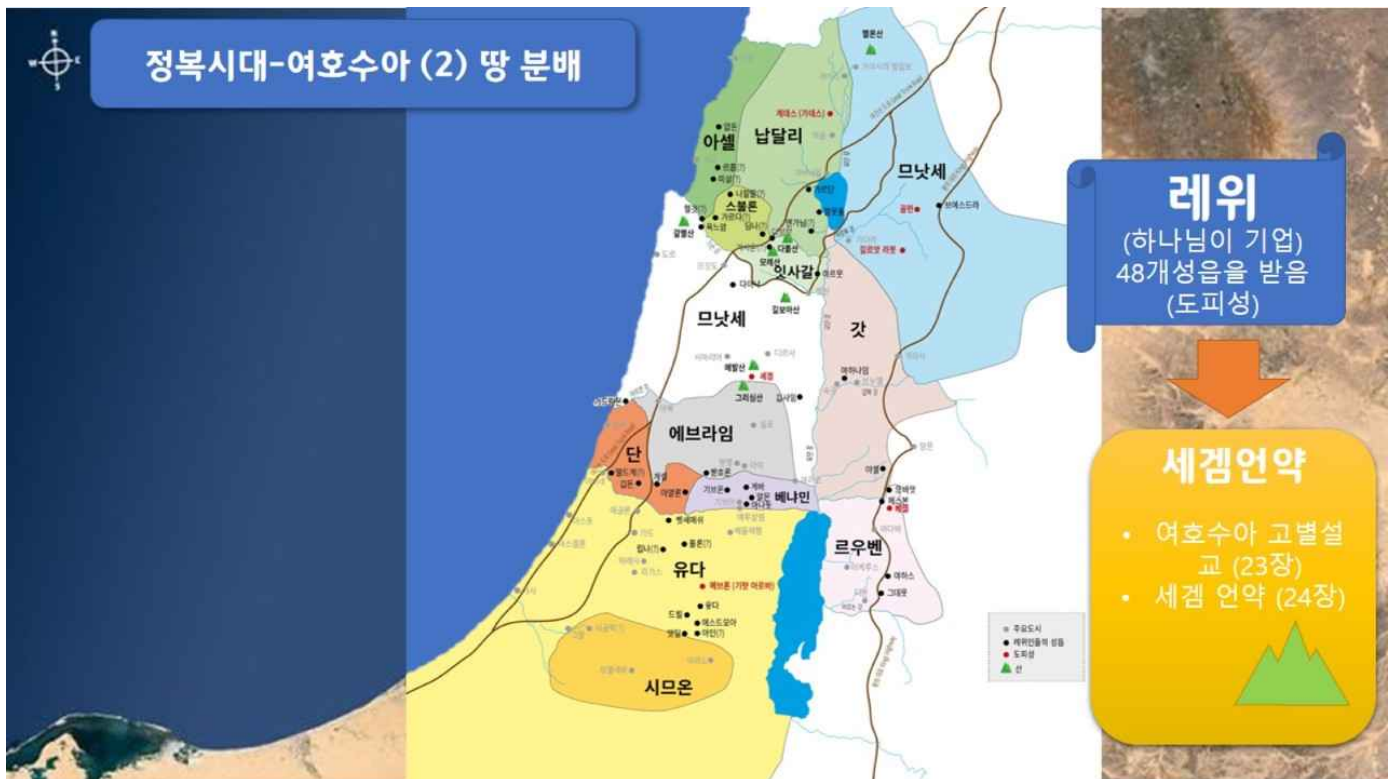
13:1-21:45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 분배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열거됩니다. 그 지명들을 연결하면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가 됩니다. 이 지명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산지 지역, 광야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시 우리가 알던 북쪽이 위쪽이 아니라 동쪽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남쪽은 광야고, 해안 지방으로는 브르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유다산지와 유다 광야를 지나면 사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 위쪽으로 사마리아 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분배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유다 땅이 넓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유다 땅 안에 분배됩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족속으로 인정으로 받고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는 이 땅들이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다는 것과 자신의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파의 이동에 관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22:1-24:33 결론

- 22장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
-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 24장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22장은 이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은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신명기적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 여부가 그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입니다.

23: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혼합주의의 문제도 경계합니다.

23: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나요? 결국 그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는 방향으로 그 역사가 진행됩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24: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
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정복 역사는 정복전쟁을 했던 위대한 여호수아, 당시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들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펼쳐집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주요 주제

1. **헤렘** :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헤렘은 노략물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성읍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이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2. **신명기적 관점** :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적 관점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들의 승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에서 신명기 율법의 특징인 단순히 법조항에 대한 준수가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복과 저주의 관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땅과 안식** :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데, 이 분배받은 영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이제 그들이 영원히 이어갈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기업”, “유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식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그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관직에 올라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에 이르지 못한다면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 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